

문명 전환기, 기업시민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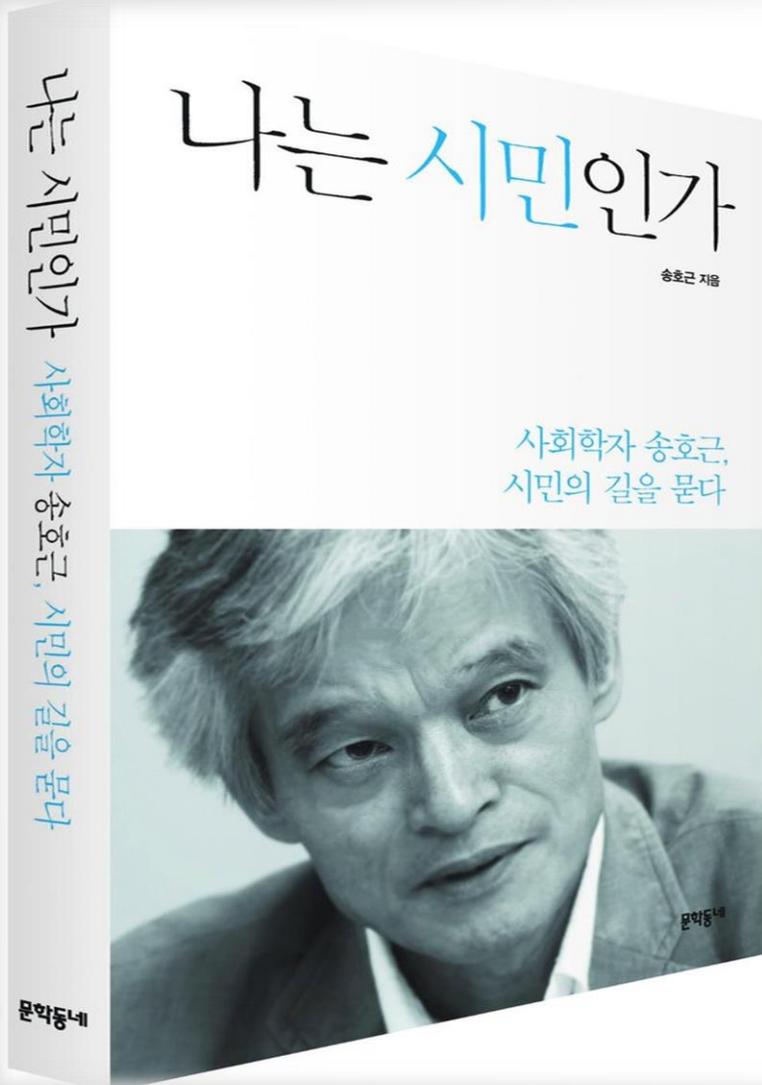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Corporate Citizenship in the Future

송호근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 석좌교수

* 이 화일은 2022년 포스코 '기업시민 포럼'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시민의 시대, 시민적 공공성



“사람들은 더불어 살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
더불어 사는 삶에서 감성과 정서가 발아하고,
그 사회적 관계망에서 **시민적 공공성**이 싹튼다.

한국인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다.
이제는 동시대를 사는 시민들을 배려할 시간,
동행의식은 개별 시민과 기업이 배양하고
실천할 시대적 과제다.”

사회는 씨줄과 날줄로 이뤄져야

피륙이 씨줄과 날줄로 짜지듯

국민
國民

국가에 대한 헌신

시민
市民

공동체적 연대

사회는 국민과 사회로 엮어지고 하나가 빠지면 허술하다

시민성(Civicsness) = 동행 시민

시장의 합리성 + 물질적 풍요

교양시민

Bildungsbürgertum

경제시민

Wirtschaftsbürgertum

시민성
같이 사는 삶

시민성의 핵심은 함께 사는 지혜를 키워가는 것 (共生 · 共存)



교양시민이 이룬것 VS 경제시민이 이룬 것

인문적인 전문가들과 부르주아 기업가들이 **시민사회를 만든 쌍두마차**

교양시민 ... 대학, 교회, 방송국



경제시민 ... 부르주아의 업적





피케티의 비판적 예견, 2050



자본집중도-불평등증가-세습사회 ... **사회국가의 요구 증대**

계속 심화되는 사회공동체 문제들



대기업의 역할은?



- 상호호혜적 시장
- 기업 이윤과 공익 기여
- 21세기 문명의 문법

21세기 자본주의 '영생' 에서 '동행' 으로 변화해야

MIT Sloan School: 대변혁시대 9 Megatrends

1. 인구규모
2. 도시화
3. 민주주의의 위기
4. 기후위기
5. 자원고갈
6. Clean Technology
7. Technology Shift
8. 강대국 글로벌 정책
9. Populism



뉴밀레니움
의 절박한
과제